

다음에도 불출석 한다는 전두환...강제로라도 법정 세워야

광주지법 전두환 항소심 첫 공판 5월 24일로 연기

법원 "인정신문 출석하라...2회 이상 불출석 땐 피고인 없이 재판할 것" 전씨측 "24일 재판도 출석 않을 것"...5월단체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원이 강제로라도 불러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여전히 미진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향후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0일 열기로 했던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2주 뒤인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

송법(365조) 등을 근거로 들어 전씨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365조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의무를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전씨 변호인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고령에 장거리이동을 해야하고 경호 인력이 동원되는데 따른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는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도 형사소송법(284조)에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정신문을 생략하는 것은

특혜"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정상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는 거라면 인정신문,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결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법정에 출석한 뒤 불출석 허가를 요청하라는 얘기다.

전씨는 다음 재판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재판 개정을 위한 의무라는 점에서 전씨의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전씨 변호인은 "방어권을

포기 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으로 모든 방어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월 단체들 사이에서는 "항소해놓고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가 하면, 진상 규명을 위한 기본 책무조차 저버렸다"는 지적이 거세다.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우는 등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사건의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항소해놓고 재판석에도 서지 않으려는 모습은 재판과 광주를 우롱하는 자세"라며 "본인이 떳떳하면 재판석에서 서서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41주년 정부기념식 다시 민주묘지서 열려

코로나에 참석 인원 99명 제한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오는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40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던 정부 기념식은 다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게 된다.

10일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로 참석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한다. 기념식에 초청을 받지 못한 인원은 기념식장에 입장을 할 수 없다.

5월 단체에서는 5·18유족회 25명, 부상자회·구

속부상자회는 각 10명, 3단체 회장 3명 등 총 48명이 참석한다. 기념재단과 5·18민중항쟁행사위, 오월 어머니집의 대표들도 참석한다.

올해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41년 전 광주의 오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오월임을 알리고 5·18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통한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의 주제인 '우리들의 오월'은 5·18정신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재점화하며 광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전국화·세계화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힌츠펬터 국제보도상' 6월 1일부터 공모

5·18기념재단 13일 기자회견

5·18기념재단은 13일 오후 2시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힌츠펬터 국제보도상 기자회견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제보도상의 제정 취지와 국내외 공모 일정, 과정, 로고·슬로건·홍보영상이 공개된다.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해부터 힌츠펬터 국제보도상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힌츠펬터국제보도상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발족하고 6월 1일 홈페이지를 정식 공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힌츠펬터 국제보도상은 해외 각지의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현장과 역사의 기록자로서 진실을 알리고자 분투하는 영상기자들을 위한 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배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고속을 위해 금호산업 등 계열사가 무담보로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줘 금호고속이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로,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배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연합뉴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광주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한 방역수칙이 시행된 10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동전노래방에서 북구청 문화예술과 영상음반팀 직원들이 영업시간 연장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민예총 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입법 선언

"예술의 자유 보장돼야"

광주민예총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 입법을 선언했다.

민예총은 이날 발표한 '광주 민족예술인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입법 선언'에서 "우리는 늘 만

족이었다. 그림도 반쪽 노래도 반쪽 시도 춤도 사진도 영상도 모든 것이 반쪽이었다"며 "강제로 쳐놓은 금단의 철선을 1mm라도 넘으면 여지없이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0.75평의 감옥으로 쓰러져야 했다"고 밝혔다.

민예총은 이어 "인류의 평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예술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며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예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제 치하에서 천황을 찬양하고 황국신민을 노래하고 창씨개명을 빨강계 썼던 오욕의 역사를 씻어 내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웅대한 예술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숙명이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거문도, 싹땡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급매 - 평당 30만원씩

제일오피스텔

-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 20층 중 8층, 코너, 전망 좋음
- ▶ 계 108㎡, 분양 67㎡, 사무실 전용
- ▶ 즉시 입주 가, 주차 2대 무료
- ▶ 임대, 보1천에 월50만 가능
- ▶ 매매 - 1억1000만원(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